

# 광주시, 복지시설 감사조례 재의 요구 논란

## 市 “단체장 지휘 감독권 침해 우려” 시의회 “복지단체 눈치보기 뒷북 제동”

광주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빼대로 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광주시가 이를 ‘재검토해달라’며 재의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정현 시장이 사회복지시설감사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앞서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시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1400여곳에 대해 시가 직접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감사에 공무원 외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감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겠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은 이미 자치구와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시까지 감사하겠다는 것은 중복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이 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수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도 ‘위험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다.

광주시는 이와 달리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에 감사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 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회가 직접 조례를 제정해 감사의 사무 분장까지 간섭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시의회가 시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지휘 감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29~30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장의 재의요구 방침에 대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시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의원은 “이미 충분히 광주시에 설명을 했는데도 뒤늦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광주시가 사회 복지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시로부터 재의요구를 공식 접수하면 다음달 9일 열리는 4월 회기에서 이를 표결로 처리한다.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간담회를 열어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할 예정이다”며 “시가 재의를 요구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사람도 물들겠네... 29일 오후 여수시 영취산에 진달래꽃이 만개해 온통 분홍빛으로 가득하다. 여수시는 ‘2018 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당분간 초여름 날씨... 주말 미세먼지는 ‘잠잠’

닷새째 광주·전남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때 이른 초여름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미세먼지 주말에는 대기 원활과 함께 다소 잠잠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고공행진을 보여 다음주 수요일까지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기상청은 30일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이는 30일 평년(아침 최저기온 4.2도, 낮 최고기온 14.8도) 기온보다 5도 이상 높았다.

31일과 다음달 1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15도에서 22도 분포의 날씨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때 이른 초여름 날씨는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됐기 때문이란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초여름 날씨는 다음주내내 이어지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고 낮과 밤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 전망하면서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인해 대체로 청정한 대기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출 06:23    해진 18:52    달출 17:33    달진 05:44

**따가운 햇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1/22	보성	맑음	9/18
목포	맑음	9/18	순천	맑음	11/19
여수	맑음	10/17	영광	맑음	9/19
나주	맑음	9/21	진도	맑음	8/18
완도	맑음	10/17	전주	맑음	11/21
구례	맑음	9/21	군산	맑음	10/19
강진	맑음	9/18	남원	맑음	10/21
해남	맑음	9/19	홍산도	맑음	7/15
장성	맑음	10/21			

◇ 바다 날씨

해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동~남동	0.5~1.0
	면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면바다(동)	북동~동	1.0~2.5	북동~동	1.5~3.0
	면바다(서)	북동~동	1.0~2.5	북동~동	1.5~3.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13	01:09
여수	19:00	13:43
	02:10	08:35
	14:36	20:40

◇ 생활지수

- 보통
- 뇌출중
- 감기
- 미세먼지

◇ 주간 날씨

31(토)	4(일)	2(월)	3(화)	4(수)	5(목)	6(금)
☀	☀	☀	☀	☀	☁	☀
8/23	11/21	11/21	10/20	10/20	10/19	8/13

# 양식 창업 5대 고민!!

##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귀어·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큰정기새우 양식에 나선 오수형 (38)**  
강원도 홍천 홍천양새우 대표.  
"이론교육부터 실습, 양식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9월 홍천지역축제기간에 수확해 큰정기새우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 양식 창업하는 이범석 (38)**  
전남 고흥 청년수산 대표.  
"전남대 양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귀어를 결심하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현대리새우 양식에 나선 조현곤 (52)**  
경남 고성 안녕새우 대표.  
"교육을 수료한 후 250명의 양식장에서 현대리새우 22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1,500평으로 늘려 20t 출하와 함께 실내그린 양식장을 건립해 연중 출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One-Stop 친환경양식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KFA 한국어촌어항협회**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055-642-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062-220-0555